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채권

민지희: [Mirae Asset BOK Monitor] 10월 금통위: 금리 인상은 이어진다

산업분석

항공업[중립] - 류제현: 화물 요율 고점 돌파 vs. 물동량 증가율 둔화

기업분석

LG전자[매수] - 차유미: 실적과 리스크 사이의 줄다리기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8,242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1,999억원 순매도

KOSDAQ: 외국인 (-)1,649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148억원 순매도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1. 10. 13 (수)

리서치센터

KOSPI (10/12)	2,916.38P(-39.92P)
KOSDAQ (10/12)	940.15P(-12.96P)
KOSPI200 (10/12)	380.69P(-6.73P)
미국 DowJones지수 (10/12)	34,378.34P(-117.72P)
미국 NASDAQ지수 (10/12)	14,465.92P(-20.28P)
중국상해종합지수 (10/12)	3,546.94P(-44.77P)
NIKKEI225지수 (10/12)	28,230.61P(-267.59P)
유럽 STOXX600지수 (10/12)	457.21P(-0.32P)
독일 DAX지수 (10/12)	15,146.87P(-52.27P)
VIX (10/12)	19.85P(-0.15P)
원/달러 환율 (10/12)	1,198.85(+4.06)
엔/달러 환율 (10/12)	113.61(+0.30)
달러/유로 환율 (10/12)	1.15(-0.01)
국고채 수익률(3년) (10/12)	1.82(+0.12)
미국채 10년 (10/12)	1.58(-0.04)
독일국채 10년 (10/12)	-0.09(+0.03)
금가격 (10/12)	1,759.30(+3.60)
구리가격 (10/11)	9,475.50(+239.50)
유가(WTI) (10/12)	80.64(+0.12)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0/7)	527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0/7)	-31억원
고객예탁금 (10/8)	662,217억원(-14,388억원)
신용잔고 (10/8)	230,355억원(-6,071억원)
대차잔고 (10/12)	789,662억원(+37,863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10월 금통위: 금리 인상은 이어진다

민지희 jihee.min.a@miraeeasset.com

- 10월 금통위, 0.75%로 기준금리 동결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및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 재확인
- 당사는 국내 헤드라인 물가 2% 중반, 연말 근원 물가는 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11월 25bp 인상 및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으로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1.25%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유지
- 4Q 국고채 단기금리-기준금리 Spread 재차 축소 여력 있다고 판단, 장단기 금리차(10년-3년) 현 수준 등락 전망

1. 금리 인상은 이어진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인 0.75%로 동결 (인상 소수의견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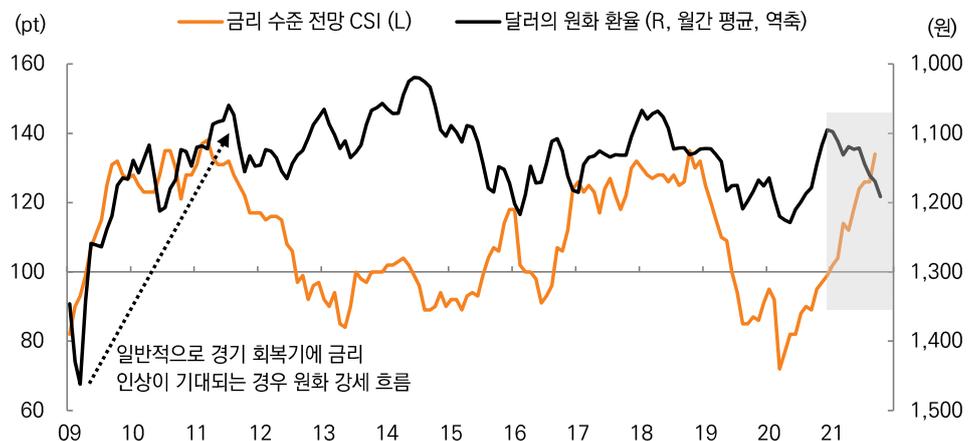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 후 이번 금통위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최근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점진적’→‘적절히’ 완화정책 정도 조정, 향후 연속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금리 상승

기준금리 동결 발표에 안도하며 금리 하락했으나,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의 11월 금리 인상 시사 및 매파적 기조 유지에 채권시장은 약세 전환했다. 특히 총재는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총재는 ‘점진적인 정상화’라는 문구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해석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적절히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통방문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에 채권 금리는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그림 1. 국내 금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연준 긴축 우려에 원화 약세 흐름



자료: 한국은행, Quantiver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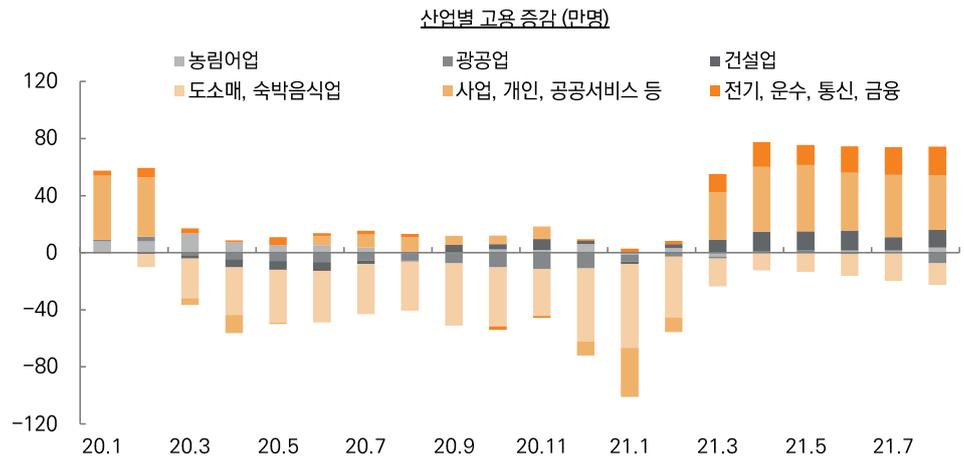
경기 및 대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확인하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1)연준 통화정책 긴축 우려 심화되며 국내 증시, 채권시장 및 원화 약세(그림1) 등 금융시장 불안, 2)국내 팬데믹 확산에 대면 서비스업종 부진에 따른 경제 회복세 추가 확인 필요(그림2) 등이 있다.

7~8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국내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와 함께 추경의 효과가 더해지는 경우 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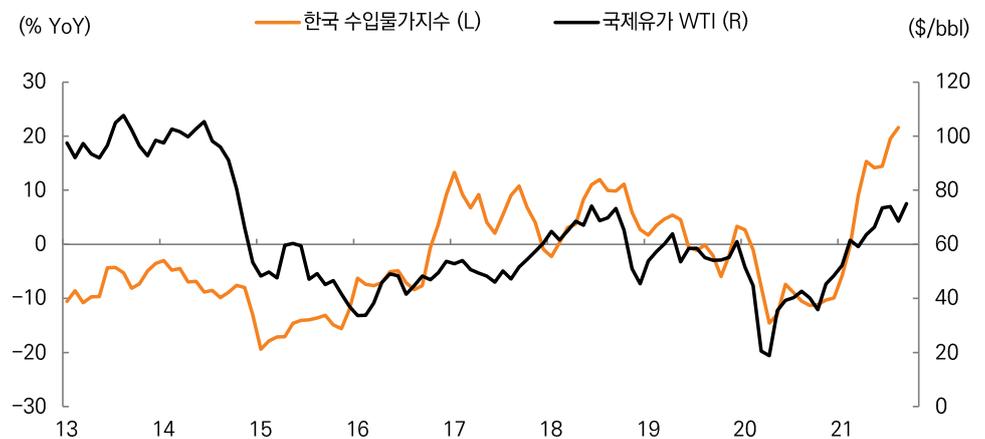
한은 총재는 이미 8월 금통위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은의 금리 인상 경로는 국내 경제 성장 경로를 확인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 국내 팬데믹 확산에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 회복은 아직 미약한 수준



자료: 통계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를 계산함

그림 3. 국제유가 오름세, 수입물가 상승 견인하며 국내 인플레이 우려 지속



자료: 통계청,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인플레이 우려에 매파적 기조 지속, 금리의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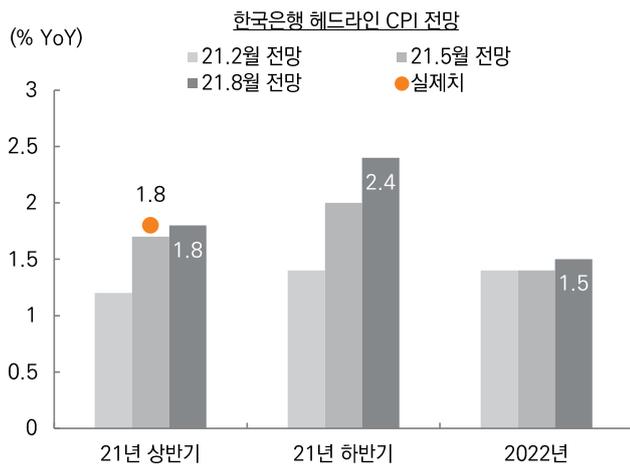
1) 인플레이션 우려, 매파적 스탠스 유지

한편, 금통위는 인플레이 전망치를 8월 대비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당분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2% 중반을 기록, 근원 물가 상승 흐름은 내년 1%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그림4,5).

한은 총재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드코로나 시행을 통해 국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 회복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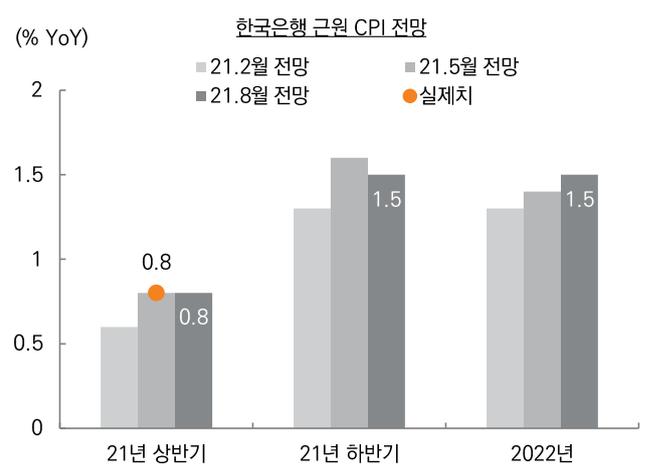
이와 같이 한은은 여전히 국내 경제 회복세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를 이어갔다. 한은 총재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인 1.25%에 비하면 현재의 금리 수준과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국내 인플레이 기대 심리(그림6)와 함께 공급 병목 현상에서 기인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근거다.

그림 4. 한국은행, 올해 하반기 헤드라인 물가 전망치 계속 상향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한은, 근원 물가는 1%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여전히 통화정책 완화적인 편,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높은 수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연말 국내 채권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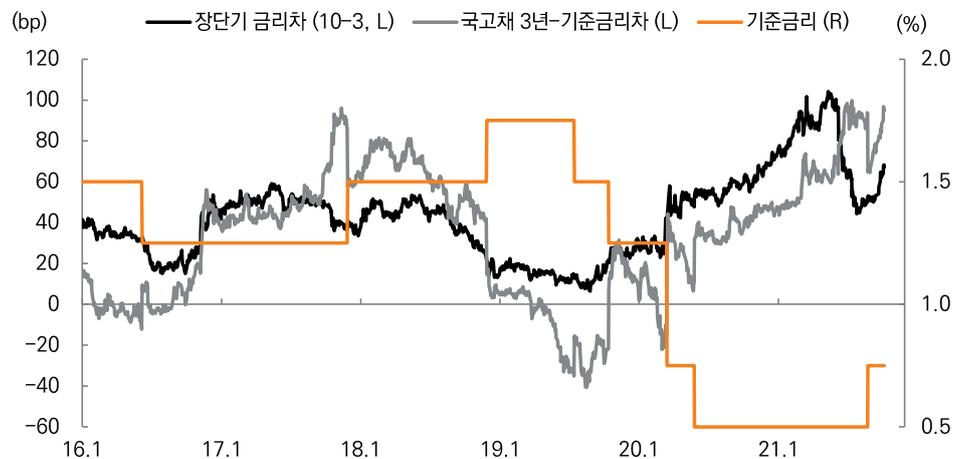
총재는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경우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관행이 아니라 경기 회복 수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팬데믹 직전 기준금리는 1.25%였고, 한은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및 향후 글로벌 경제를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도 균형 재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재정 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재료다. 한은이 경제 성장 경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에서 우려하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는 국고 3년 금리-기준금리 Spread가 연말까지 재차 축소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기간에는 기준금리가 점차 인상되면서 국고 3년-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중임에도 FRB의 긴축 경계감도 함께 작용하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표1).

따라서 연말까지 남은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및 연준 FOMC를 통해 추가적인 테이퍼링 플랜 등을 확인하면서 단기금리와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현 수준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국고3년 금리와 기준금리 차는 좁혀질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와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시기	실제 기준금리(%)	시장에서 예상한 기준금리 수준(%)	국고 3년-기준금리 Spread(bp)	국고 10년-3년 Spread(bp)
16.6~17.11	1.25	1.75	50~90	40~60
17.12~18.11	1.50	1.75	40~80	30~50
18.12~19.7	1.75	-	계속 하락하다가 역전됨	5~20
팬데믹 이후 2020년	0.50	-	30~45	50~70
21년, 한은 매파적 기조 강화	0.50	1.25	70~100	45~95
21.8 ①번째 금리 인상	0.75	1.25	65~95	50~70
21.11 ②번째 금리 인상 (예상)	1.00	1.25	축소 예상	현 수준 등락 예상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기자간담회 Live

1) 8월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가계 부채 증가,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 심리가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얼마나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위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 8월 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실질 기준금리, 금융 상황 지수 등 여러가지 지표로 평가했을 때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야함.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증대되고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행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이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금리 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곧바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2)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와 횡수 관련하여 경제의 어떤 부분이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는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총재 임기 전 내년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할 것이고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인상도 고려할 수 있음. 기준금리 조정은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 없음.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는 상황.

3) 국내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은?

현재 실질 기준금리와 종립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구체적인 적정 수준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4)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 특정 자산의 가격을 타겟팅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아님. 이는 거시건전성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진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 기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지 의문. 따라서 한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5) 정부, 단계적 일상 생활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 헝다 및 미 연준 긴축 우려 부각됐음. 이러한 상황에도 견실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최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대외 여건의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 그래도 외국인의 원화채권 자금 유입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평가도 있음. 또 한은은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장세는 견실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소비가 7~8월 다소 주춤했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회복하는 흐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도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관망할 예정임.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근 원자재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공급측 요인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물가 상승세를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점에서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음.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판단함.

6)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올해 물가 상승률을 8월 전망보다 높여야 하는지? 이러한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지, 다른 대응책이 필요할지?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수급불균형 등). 유가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좀 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봄.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물가와 경기 및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7)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달러의 원화 환율은 주요국보다 좀 더 빠르게 상승한 편.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헝다 그룹 사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에도 국내 CDS 프리미엄 등 아직 견실하다고 판단함. 한은도 외환시장 리스크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

8)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고3년-기준금리 Spread가 95bp를 상회하고 있음. 국고 3년 금리의 오버슈팅이라고 평가하지 않는지? 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행할 가능성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총재 본인이 국고 3년 금리의 금년 중 평균 값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국고 3년-기준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된 부분은 인정함. 시장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단순매입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음.

9) ‘적절하’라는 표현이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보다 강한 표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적절하”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성장, 물가, 금융 불균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개념. 간혹 시장에서는 “점진적”이라는 의미를 연속이 아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교체한 것.

10) 오늘 2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의견을 냈음. 금통위 내에서 빠른 인상에 대한 주장도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향후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인지?

연속적인 금리 인상 여부는 관행이나 과거 사례가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 달에는 동결하지만 다음달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이번 금통위에서 다수 위원들의 의견.

4.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문 비교

표 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문 비교

구분	21년 8월 통화정책방향문	21년 10월 통화정책방향문
세계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국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하락하였다.
국내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도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및 그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 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경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 운용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화물 효율 고점 돌파 vs. 물동량 증가율 둔화

류제현 jay.ryu@miraeeasset.com

글로벌 여객 시장

국제선 회복세 지속, 회복은 미국/유럽 국제선 중심

- IATA 8월 글로벌 국내선 수송량 19년 대비 -32.3% (7월 -15.6%): 미국/중국 부진
- 국제선 수송은 2019년 대비 부진(-68.8%)하나 낙폭은 지속적으로 축소
 - 회복세는 북미(-59.0%)/유럽(-55.9%), 아시아 부진(-93.4%)는 여전
- 글로벌 합산 탑승률(70.0%, 7월 73.1%)은 악화: 국내선 부진 영향

글로벌 화물 시장

화물 시장: 물동량 증가율은 둔화

- 8월 글로벌 국제 화물 수송 성장세 지속(22.0%YoY, 7월 25.7%YoY)
- 탑재율 61.1% 7월(62.8%) 역시 소폭 하락: 아시아(75.7%) 상대적 강세 유지
- 2019년 대비 벨리카고 공급은 감소폭 유지(약 -37.7%, 7월 -39.1%)
- 전체 공급 감소율은 2019년 동기비 -12.2%, 7월(-10.3%) 대비 소폭 확대
- 홍콩-미주 주간 운임은 9월말 고점 갱신(10달러/Kg 돌파) 이후 9달러까지 조정 중
 - 홍콩-유럽은 6달러/Kg 돌파 후 고점 유지

인천공항 & LCC

인천공항 9월: 고성장 속 화물 물동량 둔화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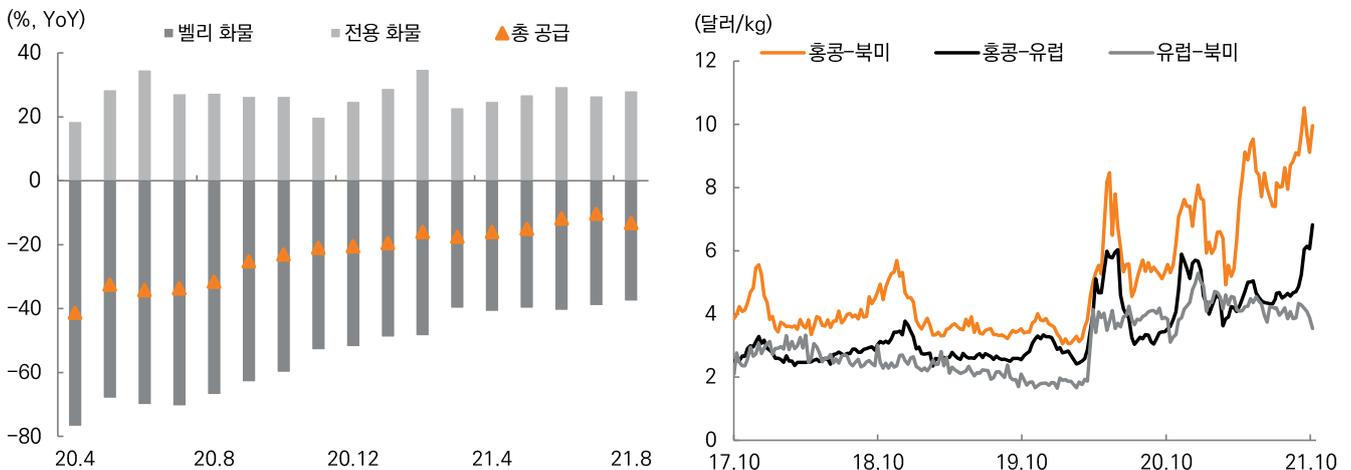
- 화물 수송량 상승폭(14.3% YoY) 8월(18.3% YoY) 대비 둔화
 - 미주(27.1% YoY) 소폭 둔화, 일본(25.0% YoY), 유럽(13.5% YoY)은 증가세 확대
- 여객: 수송량 증가율(46.0% YoY), 8월(44.4% YoY)대비 개선. 19년 대비 94.7% 감소
- LCC M/S: 단거리 국제선(19.1%) 반등, 국내선(69.5%)은 유지

중립 의견 유지: FSC 선호

항공 업종에 대한 중립 의견 유지: 리오프닝 기대감

- FSC 선호 관점 유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심사 결과에 주목
- LCC, 워드 코로나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 상승. 출입국 규제 해제 스케줄이 중요

항공화물 벨리카고 공급 감소 지속: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전년대비 고성장 이어가는 화물 운임



주: 21년도 YoY는 19년 기준

자료: IATA, ACN, TAC inde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실적과 리스크 사이의 줄다리기

매수
(유지)

목표가: 190,000원
상승여력: 53.2%

차유미 yumi_cha@miraeeasset.com

3Q21 잠정실적 Review

매출액 18.8조원(+22.0% YoY) 및 영업이익 5,407억원(-49.6% YoY) 기록

-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18.4조원)와 컨센서스(18.2조원) 각 2% 및 3% 상회
- 일회성 비용 반영 이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1.0조원)과 컨센서스(1.1조원)을 각 2% 및 10% 하회하는 수준
- 북미 주택 경기 회복세 및 가처분 소득 평균 증가로 우호적인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시장 환경. 이에 H&A 예상 매출액은 7.2조원 수준으로 기존 당사 추정치 6.9조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을 것으로 예상
- HE는 당사 기존 추정치에 부합하는 매출액 4.3조원 및 영업이익 2,52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패널 가격 하락세에 대한 사업부 수익성 개선은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VS 매출액 1.8조원(기존 추정치 1.9조원) 및 영업이익 -704억원 추정. OEM 생산 차질로 실적 성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예상
- BS 매출액 1.7조원 및 영업이익 -220억원(기존 339억원) 추정. **원재료 가격 인상과 B2B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며 영업이익은 소폭의 적자 기록한 것으로 추정**

투자 의견

불확실성 해소와 이후 실적 개선에 주목

- GM Bolt 리콜 관련 4,8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 추가 반영. 전체 리콜 비용에 대한 추가 발생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나, **계열사 내 분배 비율 조정 가능성 존재**
- 주가 모멘텀은 결국 VS 사업부의 영업실적 개선.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마그나와의 JV 설립 이전 수준으로 전장 사업부 펀더멘탈 및 성장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 **안전 재고 확보 물량 증가와 동사의 SCM 경쟁력 효과로 4분기 VS 흑전 전망 유지**
- 자세한 추정치 변경 및 목표주가 조정은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10/28) 이후 반영 예정

Key data



현재주가(21/10/12, 원)	124,000	시가총액(십억원)	20,292
영업이익(21F,십억원)	4,558	발행주식수(백만주)	181
Consensus 영업이익(21F,십억원)	4,665	유동주식비율(%)	65.6
EPS 성장률(21F,%)	0.2	외국인 보유비중(%)	30.5
P/E(21F,x)	11.4	베타(12M) 일간수익률	1.52
MKT P/E(21F,x)	10.5	52주 최저가(원)	84,000
KOSPI	2,916.38	52주 최고가(원)	185,000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4	-20.8	34.9
상대주가	-9.3	-14.8	11.2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십억원)	61,342	62,306	63,262	71,177	72,655	76,552
영업이익 (십억원)	2,703	2,436	3,195	4,558	5,034	5,312
영업이익률 (%)	4.4	3.9	5.1	6.4	6.9	6.9
순이익 (십억원)	1,240	31	1,968	1,972	3,605	3,834
EPS (원)	6,858	173	10,885	10,905	19,938	21,202
ROE (%)	9.0	0.2	13.2	11.9	18.6	16.7
P/E (배)	9.1	416.8	12.4	11.4	6.2	5.8
P/B (배)	0.8	0.9	1.6	1.3	1.1	0.9
배당수익률 (%)	1.2	1.0	0.9	1.0	1.0	1.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LG전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매매 동향

2021. 10. 13(수)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999.3/ 5일 4812.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8242.2/ 5일 -10511.0)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화학	684.8	-391.5	전기전자	-1,873.2	-3,184.9	화학	2,587.1	218.3	전기전자	-8,241.9	-9,436.0
철강금속	172.3	272.4	통신업	-350.1	-137.4	운수장비	233.5	-700.0	서비스업	-1,334.6	-2,026.4
운수장비	93.8	1,120.8	유통업	-262.8	496.4	증권	18.2	-171.4	철강금속	-386.5	-537.6
비금속광물	66.9	370.5	의약품	-162.7	-2,534.8	의료정밀	10.6	33.3	의약품	-292.1	1,478.0
운수창고업	30.2	-247.6	금융업	-124.2	1,134.4	건설업	-5.2	-264.7	비금속광물	-131.6	-118.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 인버스	617.3	648.4	삼성전자	-980.0	-2,055.4	LG화학	1,694.2	737.3	삼성전자	-7,633.1	-5,177.7
LG화학	240.2	275.2	KODEX 레버리지	-623.1	-1,140.4	한화솔루션	432.7	46.1	삼성SDI	-669.9	-820.4
KODEX 인버스	196.4	337.1	삼성전기	-352.9	-373.4	SK케미칼	298.8	-553.5	NAVER	-655.6	237.1
고려아연	190.5	401.7	SK하이닉스	-295.7	-811.6	SK이노베이션	287.5	561.7	카카오	-411.6	-699.8
현대차	147.8	287.7	NAVER	-261.8	310.0	LG전자	258.9	258.7	고려아연	-362.7	-319.0
삼성엔지니어링	115.1	220.0	SK텔레콤	-249.4	-236.5	기아	200.5	-359.0	셀트리온	-215.7	387.7
S-Oil	99.5	-78.9	셀트리온	-202.8	-1,212.1	SK하이닉스	188.3	-1,061.8	엔씨소프트	-166.1	-254.5
SK이노베이션	90.6	137.8	삼성물산	-175.8	147.6	크래프톤	181.3	-595.0	카카오뱅크	-149.7	-926.3
포스코케미칼	86.9	338.9	TIGER 체이저(SOLACTIVE)	-116.9	-80.8	우리금융지주	179.0	88.4	삼성에스디에스	-142.3	-51.9
한화솔루션	80.6	101.1	삼성전자우	-112.9	25.1	현대차	131.1	43.9	SK텔레콤	-131.0	65.6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48.0/ 5일 2374.3)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649.5/ 5일 1774.9)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IT부품	127.9	-339.9	오락,문화	-152.6	1,199.9	IT부품	334.1	-348.3	기타서비스	-359.6	495.1
반도체	65.8	-186.7	기타서비스	-108.7	127.4	방송서비스	55.5	-44.6	일반전기전자	-303.9	32.1
종이, 목재	38.6	226.0	유통	-108.3	-375.0	통신방송	53.6	-23.3	디지털컨텐츠	-187.6	-260.3
운송장비, 부품	34.5	35.1	디지털컨텐츠	-40.9	1,069.3	계약	51.0	213.0	기계, 장비	-135.8	-178.7
화학	24.9	200.8	음식료, 담배	-17.7	-40.3	인터넷	7.0	0.9	금융	-129.4	191.3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펄어비스	97.6	470.2	와이저엔터테인먼트	-113.3	47.3	에코프로	189.3	-65.3	에코프로비엠	-244.8	4.5
엘앤에프	78.5	108.6	에코마케팅	-108.0	-28.9	셀트리온헬스케어	75.9	87.9	위메이드	-181.7	-78.8
동화기업	37.9	218.4	데브시스터즈	-103.2	129.7	바이오니아	74.4	42.7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50.4	135.7
에코프로	30.8	-221.7	셀트리온헬스케어	-61.5	-419.6	대주전자재료	73.9	-417.8	에이치엘비	-83.6	291.0
에이치엘비	25.6	21.2	에스엠	-46.4	506.6	엘앤에프	65.0	275.8	동진세미컴	-81.4	-146.1
SK머티리얼즈	24.8	16.7	피에이치씨	-39.9	0.0	안트로젠	44.9	32.2	피엔티	-71.4	-76.9
하나미이크론	24.2	35.9	오스코텍	-27.7	-31.4	유바이오로직스	41.5	-156.9	에이티넬인베스트	-65.3	80.4
동진세미컴	23.8	-25.7	카카오게임즈	-26.0	139.5	펄어비스	40.6	-209.7	대원미디어	-62.1	42.0
LX세미콘	23.1	-16.4	심텍	-17.5	-14.6	네이처셀	40.6	-109.3	셀리드	-53.8	90.3
천보	21.1	156.2	서울반도체	-15.7	-95.7	새로닉스	39.8	23.3	아난티	-48.6	73.7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 ETF 거래는 LP 거래량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인버스	11,066.7	KODEX 코스닥 150	-13,685.9	LG화학	27,601.5	삼성전기	-22,161.4	
LG화학	7,830.8	삼성전자	-12,331.5	현대차	11,477.4	SK텔레콤	-21,139.0	
고려아연	5,470.1	SK하이닉스	-5,463.7	S-Oil	10,918.7	SK하이닉스	-12,236.7	
현대차	5,237.0	삼성전기	-4,006.1	삼성엔지니어링	8,517.7	삼성물산	-12,151.4	
TIGER 200	4,919.7	우리금융지주	-2,456.9	현대글로벌비스	6,248.9	삼성전자우	-10,398.6	
SK이노베이션	4,250.4	SK아이이테크놀로지	-1,773.4	한국가스공사	6,165.7	LG전자	-6,484.4	
HMM	3,261.9	NH투자증권	-1,685.7	삼성SDI	6,013.5	KINDEX 200	-4,978.8	
SK케미칼	3,240.4	키움증권	-1,664.0	카카오	5,616.4	신세계인터내셔널	-4,691.9	
롯데정밀화학	2,141.0	카카오	-1,574.3	SK바이오사이언스	5,227.8	현대모비스	-4,403.5	
한국조선해양	2,056.0	셀트리온	-1,341.8	현대해상	4,831.4	한국전력	-4,129.7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TIGER 2차전자지배	10,226.5	KINDEX 베트남VN30(합성)	-3,879.4	TIGER 미국나스닥100	53,384.5	삼성전자	-15,781.9	
KODEX 2차전자산업	5,387.9	KODEX WTI원유선물(H)	-837.4	ARIRANG ESG가치주액티브	22,809.9	SK하이닉스	-4,311.1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3,437.7	제이알글로벌리츠	-751.0	ARIRANG ESG성장주액티브	8,822.0	LG전자	-2,511.7	
삼성전자	1,065.5	TIGER 200	-541.6	고려아연	4,064.3	삼성물산	-2,248.9	
KBSTAR IT플러스	643.0	삼성에스디에스	-417.5	LG화학	2,712.6	ARIRANG 200	-2,072.1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608.8	TIGER 200 IT	-347.0	KODEX 200	1,441.0	카카오	-1,618.5	
KODEX 자동차	608.6	KODEX 차이나CSI300	-326.9	TIGER KRX바이오K-뉴딜	1,202.4	삼성SDI	-1,532.8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486.5	KODEX 차이나항셍테크	-306.7	OCI	1,199.8	신한지주	-1,524.4	
TIGER 미디어컨텐츠	444.4	KBSTAR 중국본토대형주CSI100	-297.4	S-Oil	1,148.1	셀트리온	-1,437.3	
TIGER TOP10	375.7	KODEX 미국S&P산업재(합성)	-218.1	현대차	1,105.9	삼성전기	-1,406.0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LG화학	169,420.9	24,019.4	삼성전자	-763,306.1	-97,996.7	
한화솔루션	43,274.5	8,058.3	NAVER	-65,556.5	-26,176.0	
SK이노베이션	28,749.9	9,062.5	삼성SDI	-66,989.1	-10,613.6	
SK케미칼	29,875.7	4,998.5	삼성전기	-7,914.1	-35,291.1	
LG전자	25,888.0	5,363.2	셀트리온	-21,569.6	-20,277.8	
현대차	13,107.2	14,782.8	SK텔레콤	-13,103.0	-24,940.7	
크래프톤	18,129.7	1,275.3	삼성에스디에스	-14,228.1	-5,672.1	
SK바이오사이언스	11,753.1	4,638.6	삼성생명	-13,067.5	-6,287.3	
S-Oil	5,989.0	9,947.5	엔씨소프트	-16,608.4	-2,721.5	
삼성엔지니어링	3,735.3	11,510.9	카카오뱅크	-14,969.1	-1,622.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필어비스	6,843.9	에코마케팅	-2,998.1	천보	2,906.2	에코마케팅	-4,570.7	
엘앤에프	3,253.2	데브시스터즈	-2,816.9	하나마이كرون	1,821.5	셀트리온헬스케어	-2,669.3	
동화기업	1,455.4	셀트리온헬스케어	-2,394.7	동화기업	1,685.8	서울반도체	-1,700.5	
새로닉스	1,054.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87.8	티씨케이	1,647.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695.9	
쇼박스	824.0	덕산테크피아	-752.6	메디톡스	1,441.7	오스코텍	-1,433.0	
다원시스	805.5	메디톡스	-706.6	CJ ENM	1,355.5	스튜디오드래곤	-1,228.5	
동진씨미켄	694.9	한국선재	-661.9	동진씨미켄	731.2	위메이드	-1,214.0	
에이비온	609.7	티에스아이	-616.4	에코프로	631.1	제넥신	-1,082.4	
동국알앤에스	524.2	에이티넘인베스트	-576.9	메가스터디교육	509.1	심텍	-1,042.8	
SK머티리얼즈	516.1	경남스틸	-541.4	필어비스	457.3	네패스	-1,039.7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애니젠	159.3	에코마케팅	-787.0	천보	1,594.4	에코마케팅	-2,607.2	
파라리서치	43.4	에이치피오	-485.5	필어비스	894.1	위메이드	-1,219.2	
에스에이엠티	37.6	테크윙	-117.4	디앤씨미디어	723.1	오스코텍	-930.7	
KH바텍	31.0	디오	-48.2	휴젤	537.9	심텍	-547.6	
카페24	15.0	엘오티베컴	-45.1	하나머티리얼즈	459.2	에스티팜	-453.7	
에스24	10.0	심텍	-37.7	에스에프에이	315.4	네패스	-320.3	
휴젤	8.1	에스에프에이	-17.5	씨젠	289.8	레고켐바이오	-301.7	
나이스정보통신	2.2	네패스	-15.3	CJ ENM	282.5	클버앤에이치	-263.2	
모베이스	1.7	코스메카코리아	-4.1	센코	275.4	엔젠바이오	-250.1	
동원개발	1.6	CJ ENM	-2.0	스튜디오드래곤	239.9	에스엠	-240.7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에코프로	18,934.2	3,075.8	위메이드	-18,167.5	-1,504.9	
엘앤에프	6,502.0	7,853.0	데브시스터즈	-2,889.2	-10,322.1	
필어비스	4,059.3	9,757.9	에코마케팅	-398.4	-10,804.2	
대주전자재료	7,391.2	586.6	대원미디어	-6,212.0	-1,446.9	
새로닉스	3,978.0	1,074.8	에이티넘인베스트	-6,530.4	-576.9	
CJ ENM	3,940.8	885.1	셀리드	-5,381.3	-10.2	
유바이오로직스	4,148.9	80.9	피에이치씨	-1,000.8	-3,986.1	
네이처셀	4,055.8	148.4	오스코텍	-783.9	-2,770.2	
천보	1,340.1	2,108.1	울릭스	-2,296.1	-860.8	
하나마이كرون	340.9	2,424.5	JYP Ent.	-2,332.5	-312.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1. 10. 13 (수)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10/12)	2,916.38	-1.35	-1.55	-6.70	-10.67	21.33
KOSDAQ (10/12)	940.15	-1.36	-1.59	-9.42	-10.03	7.63
KOSPI200 (10/12)	380.69	-1.74	-1.89	-6.85	-12.20	19.28
일본 NIKKEI225 (10/12)	28,230.61	1.21	1.47	-7.08	-1.32	19.83
중국 상해종합 (10/12)	3,546.94	-1.11	-0.59	-4.22	0.52	5.61
홍콩 항셱 (10/12)	24,962.59	-1.43	3.56	-4.74	-10.17	1.27
홍콩 HSCEI (10/12)	8,849.17	-1.67	3.92	-5.73	-12.08	-10.42
대만 TWSE (10/12)	16,462.84	-1.07	0.01	-5.79	-7.75	27.07
인도 SENSEX (10/12)	60,135.78	0.00	0.65	3.14	13.67	48.14
베트남 VSI (10/12)	1,394.80	0.05	2.97	3.68	8.98	50.65
인도네시아 JCI (10/12)	6,486.27	0.41	3.15	6.42	8.48	27.35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10/12)	34,378.34	-0.34	0.19	-0.66	-1.59	19.21
미국 S&P500 (10/12)	4,350.65	-0.24	0.11	-2.42	-0.54	23.10
미국 NASDAQ (10/12)	14,465.93	-0.14	0.22	-4.30	-1.22	21.81
유로 STOXX50 (10/12)	4,055.09	-0.43	-0.25	-2.76	-1.08	22.95
독일 DAX30 (10/12)	15,146.87	-0.34	-0.31	-2.97	-4.07	15.29
영국 FTSE100 (10/12)	7,130.23	-0.23	0.75	1.44	0.55	18.81
브라질 보베스파 (10/12)	112,180.50	-0.58	1.56	-1.84	-12.64	14.56
러시아 RTS(\$)(10/12)	1,869.94	0.48	1.62	8.39	15.02	60.80
필리핀 피아만도체 (10/12)	3,178.15	-1.97	-1.52	-6.98	-3.38	30.60
나스닥 헬스케어 (10/12)	1,189.32	0.31	-0.99	-9.52	-3.79	7.82
VIX (10/12)	19.85	-0.75	-6.81	-5.25	21.56	-20.82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0/12)	1,198.85	0.34	0.85	2.55	4.39	4.51
달러/유로 (10/12)	1.15	-0.19	-0.59	-2.40	-2.59	-2.40
엔/달러 (10/12)	113.61	0.26	1.93	3.34	3.31	7.86
원/엔(100엔) (10/12)	1,054.31	-0.05	-1.02	-0.96	1.09	-3.30
위안/달러 (10/12)	6.45	-0.02	0.07	0.07	-0.31	-4.40
달러인덱스 (10/12)	94.52	0.21	0.58	2.09	2.28	1.56
원/헤알 (10/12)	216.46	0.32	-0.28	-2.79	-4.40	4.26
헤알/달러 (10/11)	5.54	0.54	1.53	5.56	7.26	0.11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10/12)	80.64	0.15	2.17	15.66	10.27	104.51
원유 Brent (10/12)	83.42	-0.27	1.04	14.40	11.58	99.95
원유 Dubai (10/12)	81.99	-0.12	3.16	16.46	9.25	104.16
휘발유 NYMEX (10/12)	238.29	0.21	1.06	10.63	3.90	102.68
천연가스 NYMEX (10/12)	5.51	2.99	-12.79	11.48	50.41	91.08
석탄 ICE (10/12)	237.25	3.04	-13.19	39.93	81.31	318.06
플라실리콘 (10/6)	33.74	3.43	3.43	20.50	23.36	217.11
태양광 모듈 (10/6)	0.20	0.00	0.00	4.08	2.51	20.00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0/12)	0.75	0.00	0.00	0.00	25.00	25.00
CD(91일) (10/12)	1.06	1.00	2.00	10.00	37.00	43.00
LIBOR(3개월) (10/11)	0.12	0.06	-0.49	0.60	-0.44	-10.24
국고3년 (10/12)	1.82	11.40	16.50	31.40	42.50	89.00
국고10년 (10/12)	2.45	7.30	15.60	44.10	43.90	89.40
회사채3년(AA-) (10/12)	2.26	10.60	16.10	32.60	39.30	1.10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10/12)	782.50	2.09	9.44	-6.06	-40.56	-16.40
중국 열연(위안) (10/12)	5,875.00	-0.42	1.28	0.43	2.00	49.61
구리 LME (10/11)	9,475.50	2.59	2.22	-0.61	1.40	40.57
알루미늄 LME (10/11)	3,034.00	3.82	4.26	4.37	21.73	66.70
금 COMEX (10/12)	1,759.30	0.21	-0.09	-1.71	-3.60	-8.79
은 COMEX (10/12)	22.51	-0.67	-0.42	-5.80	-14.30	-10.91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0/12)	0.35	2.00	5.90	12.70	11.70	19.20
미국채 10년 (10/12)	1.58	-3.50	5.20	23.80	23.00	80.10
독일국채 10년 (10/12)	-0.09	3.50	10.20	24.40	23.30	45.90
일본국채 10년 (10/12)	0.09	0.20	3.30	4.50	7.40	6.10
인도국채 10년 (10/12)	6.33	-1.90	6.70	14.80	12.60	42.80
중국국채 10년 (10/12)	2.97	-0.40	8.80	9.40	2.50	-21.50
브라질국채 10년 (10/11)	11.00	12.30	-8.40	-4.60	153.40	299.2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0/12)	2,431.79	-0.18	-0.41	-0.81	0.00	9.24
FTSE글로벌리츠지수(p) (10/12)	3,469.72	0.99	1.82	-1.52	-1.13	30.83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10/12)	522.50	-1.97	-2.79	0.97	-8.05	34.32
소맥 CBOT (10/12)	734.00	0.31	-1.44	6.61	12.19	23.52
대두 CBOT (10/12)	1,198.25	-2.44	-4.18	-6.86	-17.53	15.91
설탕 ICE (10/12)	20.07	-1.28	1.11	6.81	18.55	45.01
천연고무 TOCOM(엔) (10/12)	211.20	0.09	6.24	11.04	0.09	-3.39
BDI (p) (10/11)	5,488.00	-0.69	4.20	42.03	70.01	190.06
SCFI (p) (10/8)	4,647.60	0.73	0.73	3.22	18.19	226.89
DDR4 8G (10/12)	3.93	0.00	0.00	-6.87	-18.80	43.96
NAND TLC 128G (10/12)	2.06	0.00	0.00	-0.48	-0.96	24.10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1. 10. 13 (수)

유가증권시장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10/05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916.38	2,956.30	2,959.46	2,908.31	2,962.17
	이동평균	20일	3,071.97	3,085.52	3,097.87	3,109.95	3,123.33
		60일	3,161.38	3,166.88	3,171.24	3,176.13	3,182.41
		120일	3,190.44	3,192.76	3,194.64	3,196.39	3,198.28
	이격도	20일	94.94	95.81	95.53	93.52	94.84
		60일	92.25	93.35	93.32	91.57	93.08
	거래대금(억원)		127,676.5	126,340.9	119,067.4	156,685.9	153,155.4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30	30	30	30
	ADR		68.29	68.46	57.27	60.90	65.00
코스닥시장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10/05 (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940.15	953.11	953.43	922.36	955.37
	이동평균	20일	1,006.76	1,012.47	1,017.46	1,022.49	1,028.73
		60일	1,027.67	1,029.24	1,030.51	1,031.86	1,033.94
		120일	1,013.21	1,013.83	1,014.34	1,014.81	1,015.46
	이격도	20일	93.38	94.14	93.71	90.21	92.87
		60일	91.48	92.60	92.52	89.39	92.40
	거래대금(억원)		86,292.4	112,003.4	106,859.1	132,779.2	116,614.4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20	30	30	30	30
	ADR		62.10	59.11	49.10	50.72	65.00
자금지표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10/05 (화)
국고채 수익률(3년, %)			1.82	1.70	1.70	1.72	1.65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25	2.15	2.14	2.17	2.10
원/달러 환율(원)			1,198.85	1,194.85	1,190.75	1,192.70	1,188.79
원/100엔 환율(원)			1,054.31	1,065.80	1,067.00	1,068.82	1,065.14
CALL금리(%)			-	0.69	0.65	0.72	0.75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503	543	970	1,461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870	-31	-414	-501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61	-31	-16	-129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818	-2,945	671	694
MMF 잔고(억원)			-	1,588,812	1,577,163	1,554,423	1,489,801
고객예탁금(억원)			-	662,217	676,605	700,842	708,794
미수금(억원)			-	4,986	4,250	3,628	3,476
신용잔고(억원)			-	230,355	236,426	241,042	244,807
해외 ETF 자금유출입			10/12 (화)	10/08 (금)	10/07 (목)	10/06 (수)	10/05 (화)
한국 관련 ETF(억원)			-	-	-	-	-282.0
이머징 관련 ETF(억원)			-	-75.4	-33.5	159.4	-
아시아 관련 ETF(억원)			0.6	-171.7	-201.5	-1.2	9.9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20.4	170.8	9.5	83.5
Total(억원)			0.6	-226.7	-64.2	167.7	-188.5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